

신약성경의 그림자와 모형들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구약(유대교)뿐 아니라,
그리스로마신화,
근동신화(조로아스터교) 등도
신약(그리스도교)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신약성경은 이전의 좋았던 것들(달빛
계시)보다 탁월하게 더 좋은
것들(햇빛 계시)에 대한 해석이다.**

옛 것과 새 것의 식별



[한 때 좋았던 것]

VS



[더 좋은 것]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구약이 나빴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에는 최상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좋은 신약이 나타날 때까지만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켰다”(엡 2:15).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하였다”(히 7:18). “그 첫째 것을 폐하시임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히 10:9). “온전한 것이 될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할 것이다”(고전 13:10). “그(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요한)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



이것은 새것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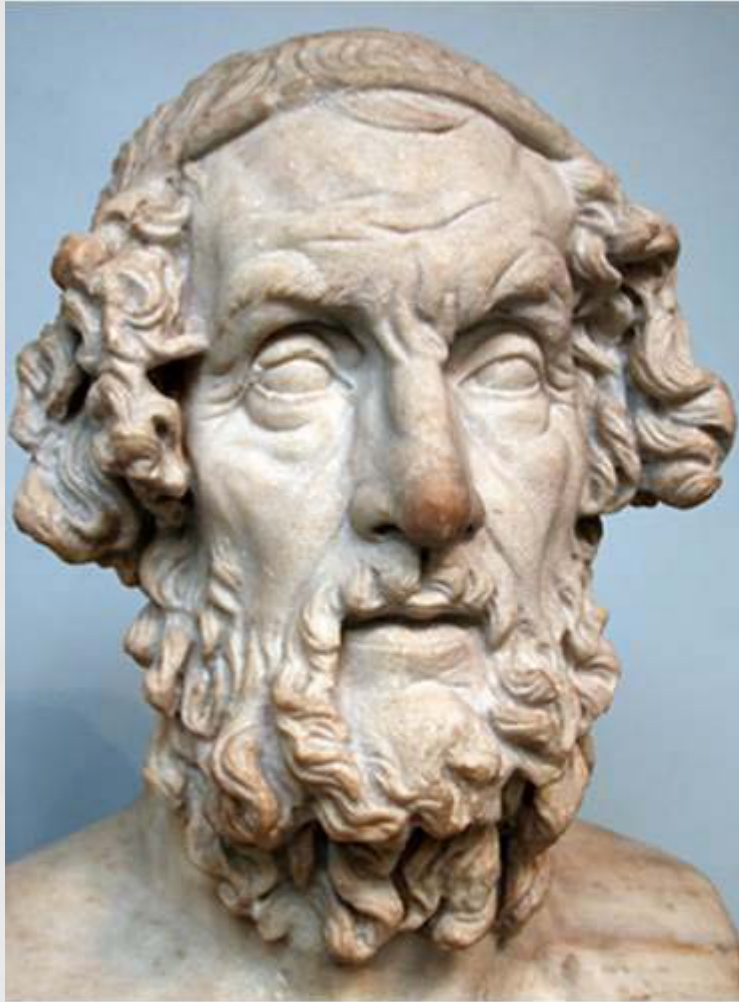
율법이 나빴거나 약한 것이 아니다. 당대에는 최고로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좋은 복음이 나타날 때까지만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조야를 뿐이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켰다”(엡 2:15).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하였다”(히 7:18).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할 것이다”(고전 13:10).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그리스로마신화를 만든 그리스로마 시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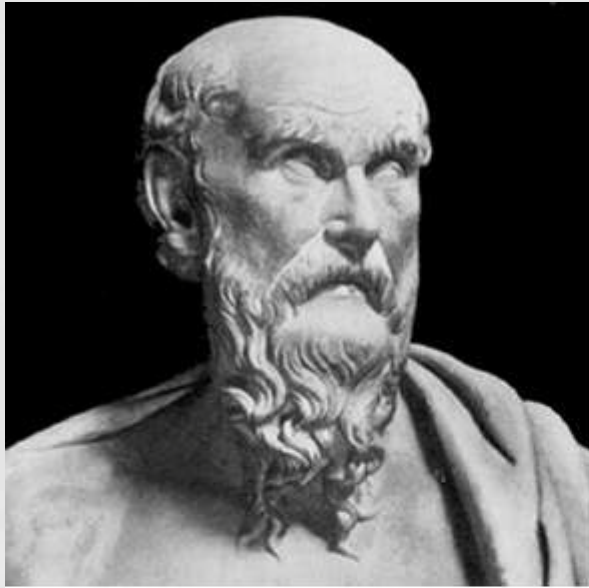
호메로스

주전 8세기경
그리스 서사 시인
시각 장애인

저서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 그의 작품들은
편집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약(유대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로마신화, 근동신화(조로아스터교) 등도 신약(그리스도교)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신약성경은 이전의 중요한 것들(달빛빛게시)보다 월등히 더 좋은 것들(햇빛빛게시)에 대한 설명이다.



헤시오도스 주전 8세기경 그리스 서사 시인

저서
〈신들의 계보〉
일명 〈신통기〉
〈노동과 나날〉

실용적이고 종교적이며 교훈적인 시를 많이 씀.
정의와 신뢰와 성실함의 미덕을 강조.

[명언들]

“고생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할 일이 없는 것이 진정한 수치이다.”

“가난은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자의 길동무이다.”

“작은 것을 더하고 계속해서 더한다면, 언젠가는 큰 업적을 이룰 것이다.”

“일에는 노략음이 없다. 신은 언제나 땀 흘리는 자의 곁에 머문다.”

구약(유대교)뿐 아니라, 그리스로마신화, 근동신화(조로아스터교) 등도 신약(그리스도교)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신약성경은 이전의 중요한 것들(달빛계시)보다 월등히 더 좋은 것들(햇빛계시)에 대한 설명이다.



베르길리우스
(Publius Vergilius
Maro, 70-19BC)
로마 시인

저서
〈아이네이스〉,
〈농경시〉, 〈목가〉

〈아이네이스〉는 로마 건국
이야기이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완성시킨 작품이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의 안내자로
등장할만큼 유명하다.

구약(유대교)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 근동 신화(조로아스터교) 등도 신약
(그리스도교)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신약 성경은 이전의 중요한
것들(달빛빛게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햇빛빛게시)에 대한 설명이다.



오디세우스와 세이렌들(Stamnos, ca. 480-470 BC. 대영박물관)
오디세우스는 그리스의 섬 이타카의 왕이었다. 트로이 전투에 참전해서
목마게척을 고안하여 트로이 성을 함락시킴으로써 지루했던 10년 전쟁을
종식시킨 영웅이다. 그는 승전소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에
올랐으나 이번에는 거친 바다와 또 다시 10년간 싸워야 했다. 수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늘 그의 곁을 지켜줬기 때문이다.
그림은 밀랍으로 귀를 막은 부하들이 댁댁히 노를 젓는 모습과 돛대에 걸박된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암초)들의 죽음을 부르는 노래에 몸부림치며 반응하는
모습이다. 스타모스는 암포라와 크라테르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항아리였다.



오디세우스(율리시스)와 세이렌들(1909년, 헤버트 제임스 드레이퍼)
 그리스 시인들은 선악과나무(참새기)를 휘감고 있던 뱀을 영생을 주는
 선악과를 지키는 용으로 이해한 듯하다. 그리스신화에서 아레스의 숲의 금양
 모피를 지키는 자나 헤라의 정원인 황금사과를 지키는 자를 용으로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반면에 르네상스시대에는 선악과나무에 상주한
 뱀을 여인으로 형상화했다. 화가 헤버트 제임스 드레이퍼도 뱀사람들의
 모습을 배배잇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이렌(암초)들을 인어들로 형상화
 했다. 오디세우스는 수호신들(아테나, 키르케)의 도움으로 이 유혹을 이기게
 되었고 고향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다. 갈릴리 호수 이야기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배는 교회요, 뱀사람들(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트로이 멸망 때 아버지 앙키세스를 들쳐 멘
아이네아스가 아들 아스카니우스의 손을 잡고
불타는 트로이 성을 탈출하는 모습(나폴리).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인들을 이끌고 기원의
바다유랑 끝에 수호신들이 약속한
새 땅 로마에 이르러 건국의
기초를 쌓는다<아이네이스>.
***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의 여호수아,
7인 세대
가장의
등장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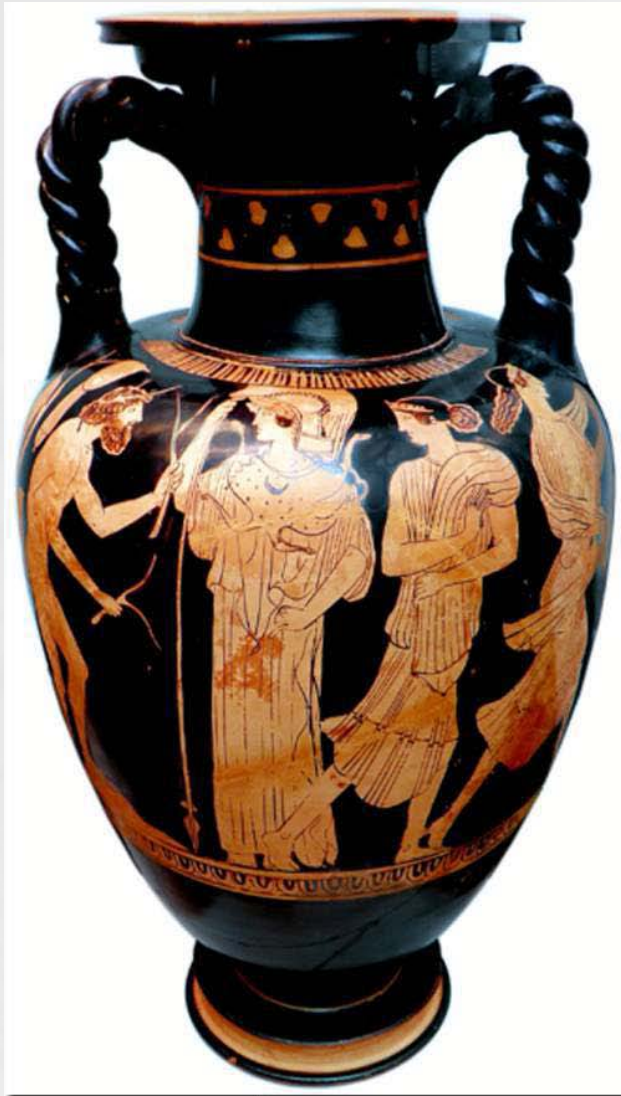


헤라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헤라클레스가 자신에게 운명처럼 부과된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곧 인생의 가시밭 길을 영웅적으로 마친 후 신들이 머무는 대전에 올라 헤라로부터 월계관을 받아쓰는 모습.
(Martin Desjardins, 1671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헤라가 오른손에 월계관을, 왼손에 지구본 위에 세운 여신 승리를 붙잡고 있고, 헤라클레스가 오른손에 헤라의 과수원인 헤스페리데스의 동산에서 리물 라돈(뿜)을 무찌르고 재취한 불멸을 주는 황금 사과를 쥐고 있고(Atlas'들과 비교), 왼손에 올림프 뿜을 쥐고 있으며, 죽은 라돈이 바닥에, 네메아의 사자 가죽이 나뭇가지에 걸쳐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영웅 이아손, 용과 금양모피, 아테나와 지혜의 상징 볼베메리(kylix, 5BC)
 금양모피를 얻기 위해서 이아손은 용의 아가리 속으로 뛰어들었고, 용은 이아손을 삼키지만 아테나 때문에 이아손을 게워내는 모습과 나무에 걸린 금양모피를 좌측에 그렸고, 머리에 투구를, 오른손에 창을, 왼손에 지혜의 상징인 볼베메리를 쥐 여신 아테나를 우측에 그렸다. 이아손의 수호신은 헤라이다. 헤라의 부탁으로 아테나와 아프로디테가 이아손을 종종 돕는다. 오비디우스는 "금양모피조차도 손에 넣는 수고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라고 노래하였다.



오뒤세우스와 아테나를 그린 암포라(440 BC, Vulci)
아테네가 오뒤세우스와 알키누스의 딸 나우시카아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습. 손에 쥔 나뭇가지들은 알몸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서 그가 당한 처지를 상징한다. 이로써 오뒤세
우스는 나우시카아의 도움으로 20년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된다.



지혜와 용기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타고난 고난과
용감히 싸우는 헤라클레스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암포라)
잠언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를 여성(Lady Wisdom)으로
의인화하고 있다. 중간기시대에 유대교에서는 이미 이 지혜
(Holy Wisdom)와 성령을 동등하게 여겼다(지혜서 7:7,
9:17). 따라서 바울의 적대자들이었던 유대교적 영지주의
에비온파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일신론자들이었으므로 성령을
지혜로 인식하였고, 그들이 지혜로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
한다는 암시가 고린도서에 담겨있다(지혜서 10:18, 잠회서
15:3, 6:31, 잠 18:4).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무화과나무이고, 그것은 여성으로 표현되었다. 영지주의자들이 빛의 사자라고 말한 뱀도 지혜와 맞닿아서 여성으로 표현되었다. 잠언서에서도 지혜가 여성(Lady Wisdom)으로 의인화 되었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일었던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과 타르굼에서는 하나님을 낳으시고 창조하신 자로 표현되었다(8:22). 또 잠언 7장 4절은 “지혜(chokhmah)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Binah)에게 너는 내 친족(kinsman)이라”고 했는데, 아가서 4장 12절은 “내 누이 내 신부”라고 했다. 이를 유대교 신비주의로 풀면 “내 누이”는 하나님이 낳으시고 창조하신 지혜요, 아담의 아내를 말한다.



아테미 신전의 원주 유물(325-300 BC, 대영박물관)
이 세 조각의 사진은 동일한 원주의 앞뒤 옆면으로써 순서대로 배열
하였다. 좌측부터 날개를 가진 타나토스(죽음의 신), 옷을 입은 여성,
오른손에 전령사의 상징인 케뤼케이온을 쥐는 헤르메스 프시코뎜포스
(저승사자), 서 있는 여성과 앉아 있는 남성이 부조되었다. 이 한쌍의
인물들은 페르세포네와 하데스로서 음부(저승)의 신들이다.



헤라클레스가 육신의 짐을 벗고 신들의 대전에 올라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여신 헤라의 딸이자 신들에게 뜻을 따르는
청춘의 여신 헤베와 결혼하는 인간 승리의 극적인 장면이다.
(Jens Adolph Jerichau, 1816-1883)

고대 근동세계신화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이며 바람(폭풍)의 신이자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두크(Marduk)가 혼돈(흑암)과 바다의 여신이자 바다의 용인 티아마트(Tiamat)를 버락으로 공격하는 바벨론의 부조(대영 박물관)



라마수(Lamassu) 석상(넴루드 출토, 대영박물관 소장).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721-705 BC) 궁전 코르사바드(Khorsabad)의 수호신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약 4천년 전에 등장한 아시리아 제국 도시의 성문이나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황소 몸체에 세쌍의 날개와 사람의 두상을 가진 이 라마수는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다리우스 대왕의 수사 궁전의 스피нк스(480 BC, 쿠티르)
사자 몸체에 세쌍의 날개와 사람의 두상을 가진 이
스핑크스는 페르시아의 수호신이자 다리우스 대왕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에스겔이 본 환상: 네 생물과 수레바퀴(에스겔 1, 10장)



날개 달린 바퀴에 앉으신 야훼
에돔-유대인들이 주조한 쿼터 셰겔 (주전 333, 영국박물관)로서
뒷면에 날개 달린 바퀴에 앉으신 야훼께서 왼손에 새를 바치고
계신 모습과 하단 오른쪽에 수염을 기른 유대인 얼굴을 새겼다.



이집트의 신 아문(산양) ^별이 달린 알렉산더 대왕과 아문-제우스.
알렉산더는 아문 또는 아문-제우스로 불렸다. 다니엘서 7-8장에 나오는
^별별과 계시록 13장, 17장의 ^별별이 신성을 참칭하는 제왕들을 상징한다.

산양 뿔이 달린 아몬-제우스
(테라코타, 1세기경)





계시록 13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뱀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를 클로즈업한 것이다.